

# 전남 '100인의 아빠단' 8기 출범...함께육아 확산

### 보건복지부·전남도 협력...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동 발대식·퍼포먼스·가족올림픽 진행...현장 체험 중심 운영

전남도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돌봄 문화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최근 화순 어울림센터체육관에서 '2026년 제8기 전남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및 도전! 가족올림픽'을 열고 아빠 육아 참여 확대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빠들이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에 참여하는 지역 대표 참여형 사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류와 전문가 교육, 미션 수행 등 단계별 활동도 함께 운영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제8기 아빠단과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포토존 체험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선서문 낭독, 함께육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카드섹션 퍼포먼스에서는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돌봄의 가치를 표현했다.

이어 열린 '도전! 가족올림픽'에서는 고리 던지기과 판 뒤집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아빠와 자녀가 팀을 이뤄 활동에 참여하며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지역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전남도는 아빠단 활동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육아를 '돕는 역할'이 아닌 '함께하는 역할'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지역별 소모임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참여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윤연희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아빠단 활동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화순 어울림센터체육관에서 '2026년 제8기 전남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및 도전! 가족올림픽'을 열고 아빠 육아 참여 확대를 다짐했다.

##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대한테니스협회 감사패 수상

### 광주오픈 성공 개최 등 공로 인정...“테니스 경쟁력 향상 집중”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테니스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주오픈의 성공 개최와 지역 테니스 저변 확대를 이끈 공로를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27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6일 광주전원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 시상식에서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시상식에는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을 비롯해 최재은 총남테니스협회장, 정을진 전북테니스협회장,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 차현호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 회장이 취임 이후 광주 테니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

민국 테니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련됐다.

특히 전 회장은 2016년 첫 대회로 시작으로 9회째를 맞은 광주오픈(2020~2021년 코로나19로 미개최)을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 챌린저 대회로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대회 운영 지원은 물론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와 지역 스포츠 위상 제고에도 힘써 왔다는 평가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전갑수 회장이 보여준 테니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앞장서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오픈이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테니스 경쟁력 향상과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지난 26일 광주전원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 시상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왼쪽)이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패 수상은 광주오픈의 역사적인 성과와 맞물리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권순우가 결승에서 어거스트 홀그렌(덴마크)을 세트스코어 2-0으로 꺾고 한국 선수 최초 광주오픈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또 정현은 8강에서 권순우와 첫 공식 '코리아 더비'를 펼치며 대회 흥행을 이끌었다. 비록 1-2로 아쉽게 패했지만 한국 남자 테니스의 경쟁력을 확인시킨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았다.

송하경 기자 hajong2@

## '피하조직 재생' 저온 치료 패러다임 제시

### 신상식 뷰티스맑은피부과 원장 개발...FDA 승인 획득

광주지역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재생의학 플랫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광주 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은 신상식 대표원장이 개발한 레이저치료기 '네오스컬프 플러스'가 미국 FDA 510(k) 승인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FDA 510(k)는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 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 전 거쳐야 하는 허가 인증 절차다.

현직 피부과 전문의가 학술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치료기기가 미 FDA 시판 전 절차 승인까지 획득한 사례는 국내에서 손에 꼽힌다.

신 대표원장이 개발한 네오스컬프 플러스는 43~45도 미세 고주파 열을 시술 부위 1곳 당 5~10분간 전달하는 치료 기법을 활용한다. 고주파 열을 피부 30mm 아래 피부층, SMAS(피하근섬유) 탄력층까지 전달하면 세포 내 수용체 활성화가 일어



난다는 원리에 착안했다.

신상식 원장은 "기존의 피부 치료 기기는 고열로 피부만 자극해 효과가 짧은 기간에 그쳤다.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세포 변성을 수반해 화상·흉터 위험도 있었다"며 "줄기세포를 자극해 근본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로 새로운 재생의학의 패러다임을 열 차례다"고 말했다. 이산화기자

## 광주도시공사, 광주천 가꾸기·에너지 절약 캠페인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 노사가 지역 생태계 보전과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도시공사 노사는 최근 광주천 일대에서 백남인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명이 '광주천 가꾸기 환경정화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광주천변 1km 구간을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하천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휴공 160여 개를 직접 투척하며 생태 복원에 힘을 보탤다. 이



도시공사 직원들이 광주천변에서 환경정화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산화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포스코 제안왕'에 선정된 고상현 광양제철소 에너지부 동력색션 과장(오른쪽).

## '2026포스코 제안왕'에 광양제철소 고상현 과장 선정

포스코는 '2026포스코 제안왕'에 광양제철소 에너지부 동력색션 과장 고상현 과장을 비롯해 포항제철소 STS제강부 3제강 공장 이성호 과장, 기술연구원 표면연구 그룹 고석영 과장 등 3명을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과장은 도로 경계선 안전발판 설치, 승압기 밸브조작대 설치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현장의 안전사고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 및 에너지 관리로 현장혁신 가속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특히 현장의 철거 설비와 불용설비를 발굴 및 정리하여 낭비 요소를 줄이는 등 에너지 운영효율을 극대화했고 설비의 명칭 일원화, 설비 데이터 시각화 모델 개발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상현 과장은 "저장한 기술도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실제로 현장을 운영하며 느꼈던 일상 속 낭비 요소를 하나하나 줄여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안왕에 도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며 작은 변화가 회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매년 '제안 한마당' 시스템 내 실적을 바탕으로 각 제철소와 기술 연구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최종 3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해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im@gwangnam.co.kr

## 게시판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시지부 2026년도 정기 총회=4월 28일(화)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갈비연. 광주·전남·전북 공군예비역 누구나. 문의 010-2115-0945.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로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등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

원 062-369-4009.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래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ონსე (음력 3월 12일)

48년생 가족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60년생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라  
72년생 출간한 노력이 성공을 앞당길 것이다  
84년생 강한 나무가 부러지지 마음 넓게 쓰라  
96년생 달라지겠다

51년생 전화위복·새움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63년생 우연히 들은 정보가 매우 유익할 것  
75년생 진용을 정비 해야겠다  
87년생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처신을 잘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겠다

54년생 전체를 종합 정리하는 여유가 필요  
66년생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78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  
90년생 이상행을 못 받았으면 도전하라

57년생 소인배와 일하면 안 좋은 일을 겪는다  
69년생 해묵은 정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될 것  
81년생 귀하의 지분 마저 포기 될 것이다  
93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49년생 배우자의 이해를 먼저 구하라  
61년생 구슬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3년생 숨겨진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날  
85년생 쉽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97년생 친구들과 서둘러 화해하라

52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있을 것이다  
64년생 문서 거래는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  
76년생 행방이 개질까봐 두렵다  
88년생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하라

55년생 건강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67년생 도로상의 사고를 조심하라  
79년생 장래성 있는 일에 적극 밀고 나가는 날  
91년생 마음을 바꾸고 대세를 관망 해야겠다

58년생 자녀에게서 좋은 선물을 받는다  
70년생 사기 당할 우려가 있으니 용하지 마라  
82년생 중랑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년생 오랜만에 여인과 데이트 하는 날

##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 보면 매끄러워진다  
62년생 재정 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지겠다  
74년생 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도라 하라  
86년생 배우자와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98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53년생 속 사정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65년생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77년생 지인과 다툼은 너그럽게 이치하라  
89년생 열심히 뛰고 노력했으나 소득이 있다

56년생 문서 갈등은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  
68년생 목욕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라  
80년생 돌발적 변수에 기민하게 대처하라  
92년생 주관적인 행동으로 역효과 보는 날

59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71년생 목욕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라  
83년생 뜻밖의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 있다  
95년생 가족의 인정받으니 능력 발휘된다